

	성명서	2022. 3. 2.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허위 전시 이력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미술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모독하지 말라>

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명시된 배우자 김건희 씨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주요 전시회 개최 내역 중 까르띠에전, 반고호전, 앤디워홀전, 샤갈전이 ‘개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홍보대행했던 업체를 인수했으니 개최가 맞고, 제작투자했으니 개최가 맞다”는 몰타기 억지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반고호전, 앤디워홀전, 샤갈전에 대해서는 포스터, 팸플릿, 입장표에 제작투자자 회사명이 들어가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뻔한 해명을 반복하며 급기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정녕 ‘개최’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의도적인 본질 호리기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TF는 각 전시회가 실제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울시립미술관에 “코바나컨텐츠의 해당 전시 주최/주관/제작투자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확인한 것이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최’의 뜻을 찾아보라 했건만 아직도 안 찾아본 것 같아 그냥 직접 알려드리겠다. ‘개최’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열”을 말한다. 이것을 보고도 까르띠에전, 반고호전, 앤디워홀전, 샤갈전을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게 맞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형사고발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라는 허위이력 논란 당시의 알맹이 없는 사과라도 재탕하길 바란다.

또한, 허위 네거티브 운운하는 형사고발 입장을 밝혔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두고 허위라고 겁박하며 거짓 고소를 하면 즉시 무고죄 고소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도 알려드린다.

2022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